

韓國의 大學文化, 이대로 좋은가

李 恩 珍
(韓國外國語大·敎育學)

우리나라의 대학은 해방 후 亂의 발전에 급급한 결과 內實을 기하는 過程 要因에 대하여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대학이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정 요인의 기획과 운용에 가일층 정열을 쏟아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수준 높은 大學文化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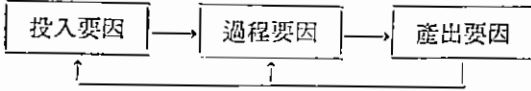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가정, 이웃, 사회에서 그 영향은 끊임없이 개인에게 작용한다. 그리고 한참 성장,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영향은 그만큼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말해 주듯 어릴 때의 환경에 의한 영향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목표로 교육하는 학교는 그들이 좋은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6년 동안 그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생활하게 됨을 생각할 때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學校環境을 갖추느냐 하는 것은 敎育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학술적인 용어로 文化라고 개념화한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이 갖는 모든 經驗들은 바로 학교가 형성한 環境, 즉 學校文化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學校文化는 각급 학교의 수준에 따라 다르며,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학교라 하더라도 그 文化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국민학교는 국민학교의 특이한 文化를, 중등학교는 국민학교 또는 대학과 다른 특이한 文化를, 그리고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다른 특이한 文化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수준의 학교라 하더라도 人的·物的·地域의 特性에 따라서 서로 다른 文化를 형성하게 된다.

本稿에서는 먼저 大學文化를 형성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밝히면서 오늘날 우리 대학의 文化가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大學文化란 무엇인가

먼저 大學文化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모형에서 투입 요인은 과정 요인을 있게 한 原因的인 條件들을 말하고, 과정 요인은 투입 요인들의 相互作用과, 그 상호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복잡한 社會的·心理的 環境을 말하며, 산출 요인은 원인으로서의 투입 요인과 과정 요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최종 산출—예컨대, 학생들의 변화된 행동, 즉 지식, 태도, 가치관, 학문 발전과 지식 및 기능의 창출, 그리고 사회 봉사에서의 기여도 등—을 말한다.

大學文化를 형성하는 投入要因은 外生的 要素와 內生的 要素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생적 요소는 대학 밖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 變化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사회로부터의 지원과 요구를 말한다. 예컨대, 산업경제적인 발전에 따른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수요, 정치적인 변화에 따른 요구, 그리고 사회 문화의 변동에서 오는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내생적 요소는 학생, 교수, 행정가, 물적 자원, 그리고 교육 과정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학생은 大學文化의 투입 요인인 동시에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산출 요인이 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 정의적 발달, 적성, 그리고 건강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教授는 대학교육의 산출과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입 요인이다. 그들의 학문에 대한 태도, 가치관, 정열 등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행정가는 대학교육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원하는 데 관여하는 자원으로 그들의 자질과 능력, 가치관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대와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풍토 속에서 行政要員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物的 投入要素로서는 시설과 재정을 들 수 있다. 대학의 외관 시설은 물론 내부 설비 및 각종 기구 등은 대학의 研究機能과 教育機能을 수행

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내생적 투입 요인으로서의 教育課程은 대학의 교육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어떤 教育目的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教育內容을 마련하고 있으나 하는 것은 大學文化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大學文化를 형성하는 過程要因은 투입 요인을 산출 요인으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動態的 變因이다. 즉, 학생, 교수, 행정 요원 등의 인적 자원과 시설 및 재정 등의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大學教育의 산출을 낳게 하는 전환 작용을 말한다. 大學文化의 과정 요인으로서의 교육 과정의 운영, 행·재정적 지원 활동, 대학 문화의 풍토 등을 들 수 있다. 教育課程의 운영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의 투입으로 교수와 학생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相互作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의 전체 구조와 조직, 교양, 전공, 부전공 등의 학점 배분 및 시간 등을 교과 과정의 편성에 관련된 투입 요인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실제 教授 및 學習過程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과정과 기획 등은 教育課程의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行·財政的 支援活動은 기대했던 결과를 산출케 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의사 결정,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이나 행정가나 정책 결정자가 발휘하는 지도성 등은 大學文化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大學文化의 風土는 무형의 형태로서 교수·학생·행정 요원 등의 대학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심리적 환경을 말한다. 이 풍토는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각기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기대와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조직의 自生的 文化라고 말할 수 있다.

產出要因은 大學의 機能을 설명해 주는 요인이다. 대학의 기능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 왔다. 그 변천 과정은 최초의 教育的 機能에서, 점차적으로 研究機能을 함께 포함하게 되었고, 20세기초에는 社會奉仕機能까지도 포괄하게 되었다. 대학의 교육적 기능에 의하여 학생들의 양적 및 질적 산출이 일어난다. 양적

인 산출은 대학 졸업생수 및 자격 부여가 되며, 질적인 산출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 정의적 특성,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 등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대학의 연구 기능에 의한 산출은 연구 결과의 수월성과 학문 발전의 기여도, 그리고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이 될 것이다. 대학의 사회 봉사 기능에 의한 산출은 교수 및 학생이 사회에 대하여 제공하는 봉사로서 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 大學文化는 대학의 교육적 기능, 연구 기능, 사회 봉사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입 요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투입 요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과정 요인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정 요인은 大學의 機能을 가늠할 수 있는 내적 준거로서 대학의 문화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이다. 아무리 투입 요인의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요인을 소홀히 한다면 大學文化의 질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해방 후 量의 발전에 급급한 결과 內實을 기하는 과정 요인에 대하여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대학이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하는 과정 요인의 기획과 운용에 가일층 정열을 쏟아 좋은 大學文化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大學文化는 어떠한가

한국의 大學文化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학 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밝히면 될 것이다. 우리의 大學文化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대학 문화의 기초적인 지표가 되는 대학 재학생수와 학교수의 증가 추세, 이에 따른 대학 교육의 증가 현상, 그리고 교수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교통계연보에 따르면, 해방 당시의 고등교육(전문학교, 교육대학, 4년제 대학 등 포함)의 학교수 및 학생수가 19개교 7,819명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4년제 대학만 40개교, 학생은 146,414명으로 급증하였고, 1985년에는 4년제 대학 100

개교, 학생은 931,884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해방 당시의 학생수에 비하여 무려 120배로 폭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학 교수의 증가 추이는 1945년 1,490명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7,944명으로 늘어났고, 1985년에는 26,459명으로서 해방 당시와 비교하여 무려 20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수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는 1965년에 약 20명이던 것이 1975년에는 약 21명으로 늘어났고, 1980년에는 약 28명, 그리고 1985년에는 약 36명으로 증가하여 교수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40년 동안 대학의 학생수가 급증함에 따라 그 수요를 양적으로 해결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大學文化의 內的 準據로서의 過程要因에 관련되는 제반 요소들은 뒷전에 밀려 제대로 처방을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大學文化의 過程要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學의 理念과 目的의 불투명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大學教育의 이념은 대학교육의 목표와 기능에 대한 기본 철학이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목적은 대학의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술된다. 따라서 한 大學의 理念이나 教育目的은 대학의 일관된 교육 내용과 대학의 존립 방식을 규정하는 근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大學에서 설정·제시하고 있는 이념 내지 목적은 현행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인식과 진지한 연구 없이 오로지 설립·인가를 얻는 데 필요한 요식 행위로서 이용하고 있는 인상을 갖게 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가 급변함으로 말미암아 大學의 기능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에 설정해 놓은 대학의 이념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올바른 교육관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하겠다. 특히 설립자의 대학의 이념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는 좋은 大學文化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의 教育課程 編成과 運營에 있어서

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대학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대학에서 어떠한 내용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에서부터 그 결과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평가 방법은 大學教育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大學教育結果에 대한 公信力을 제고시키는 데 직접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대학교육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이다.

우리나라 大學의 教育課程은 교양, 전공, 부전공 및 복수 전공, 자유 선택 과정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각 영역별 이수 학점과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양하다.

교양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현행 교양 과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양을 쌓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개혁이 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구하지 못하고 대학마다 相異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교양교육의 목적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대학마다 그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 다의적이다. 1984년에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조사한 보고서에서 大學 教養教育의 目標을 '인격의 완성'으로 보는 대학이 24.5%, '전공을 위한 기초'가 23.7%, '가치관 확립'이 16.7%, '지도적 인격 도야'가 15.2%, '올바른 역사·세계관의 확립과 국민의식 고취'가 12.1%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각 대학은 교양 과목 편성에 있어 심한 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우 교양교육의 본질적 속성을 무시하고 특정 학문 분야의 기초 과목만을 편성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그 밖에 교양교육 과정에서의 문제도 교양 필수 학점의 과다, 대단위 강의, 외래 시간강사에의 높은 의존도, 일제식 수업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大學의 專攻課程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전공 선택의 범위가 대단히 좁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전공 필수 과목이 과다하게 개설됨으로써 필수와 선택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공 선택이라 하더라도 개설되는 과목수가 적어서 필수와 마찬가지로 수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에 대한 넓고 깊은 안목을 갖는 데 불리한 결과를 낳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동기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1984년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대학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전체 110개 대학 중 41개 대학에서 전공 필수 학점을 전공 선택 학점보다 많이 개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副專攻 課程의 운영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대학은 학칙에 부전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별도로 부전공 영역의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인접 학과의 전공 과목을 이수하여 일정수의 학점을 채워 넣은 경우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간표상의 중복을 피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부전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전공 영역의 과목을 별도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실제 개설되는 시간수가 늘어나므로 각 대학들은 전공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전공을 부분적으로 필수화하여 별도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1982년 현재 9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오늘날 지식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學問의 폭도 넓어지고, 각 學問間의 연계가 더욱 요청되고 있음을 볼 때, 학부 과정의 학생들에게 하나의 專攻分野만 집착하게 하는 것보다는 인접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폭 넓은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로 교과 과정의 운영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複數專攻制 역시 부전공과 마찬가지로 학칙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넓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복수 전공은 최소한 전공 학점과 동일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 인정하므로, 대학 4년 재학시 부전공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에 1~2개 학기를 더 다니면서 자기의 부전공 영역의 학점을 더 이수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부전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제도가 명목

상으로 있을 뿐 학생들에게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 敎育課程 運營에 있어서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敎授方法과 評價方法의 劃一性을 들 수 있다. 敎育의 최진선이 교실이라고 한다면,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敎授方法과 학생의 學習活動은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준거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大學의 敎授方法은 講義 일변도의 注入式 敎授方法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學習者의 동기, 학습 준비도, 개인차 등에 관계 없이 敎授의 일방적인 내용의 전달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高次的 精神能力을 자극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나아가서 自律的인 學習能力의 신장을 기대할 수 없어 학생들의 受動的인 學習態度만 길러 주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강좌당 수강 인원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敎授施設을 마련하며, 敎授·學習을 보조하는 자료를 충분히 개발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評價方法은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한 것을 확인하거나, 강의실에서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풀어 내게 하는 식의 평가 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데 사용될 뿐 敎授 및 學習方法에 투입 환원하여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의 본래적 기능이 학생들의 學業成就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과제의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단순한 지식의 암기나 강의실의 내용을 풀어 내게 하는 것으로서는 그 기능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려면 필답 고사에 의한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레포트, 퀴즈 문제, 논문형 문항 등을 수시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졸업정원제의 실시 이후에는 체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분석력, 종합력 등의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논술형 평가 문장보다는 객관식으로 획일화된 문장 형식을 택하고 있는 경향이 늘어났다.

네째, 우리나라 대학의 學問的 研究 與件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學問的 研究 結果에 대한 開放的 風土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대학의 학문적 여건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 중에서 물적, 재정적인 지원은 연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겠다. 1985년 韓國大學敎育協議會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총 시설 면적 중 研究機能을 위한 시설은 불과 전체의 3.8% 밖에 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1984년 자료에서는 한국 대학의 研究開發費에 대해 1982년에 미국이 한국보다 106배, 일본은 67배, 서독과 프랑스는 약 27배 이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 대학 研究開發費의 재원은 주로 정부이며, 일부는 사회 기관이나 산업체 등에서 제공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전체 대학에 배분되는 액수가 매우 적다. 사회 기관이나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는 일부 대학에, 그리고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규모 또한 영세하다. 그리고 각 대학에는 부설 연구소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부설 연구소의 연구 과제 1건당 연구비는 너무나 영세하여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大學의 學問的인 研究與件을 위한 시설 및 연구비 지원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大學 自體가 형성하는 學問的 研究風土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 풍족한 연구 지원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한 開放的 批判風土가 결여되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특히 研究結果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인간 관계, 선후배 관계 등으로 감정적 차원에서 회피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석·박사의 학위 논문 심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적 토의와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는 한국 대학의 학문적 폐쇄성을 드러내는 한 증거라 하겠다.

다섯째, 대학 行政管理體制의 官僚化를 들 수 있다. 좋은 大學文化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大學 自律에 의해서 대학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다른 일반 사회의 조직과는 다른

전문가가 모인 教授集團이다. 대학의 교수들은 자기 專攻 學問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또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는 상부의 간섭이나 지시 및 통제를 싫어한다. 大學行政體制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지닌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부서이므로 지시 일변도의 행정은 그들의 역할 수행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官僚化한 行政體制는 대학의 운영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사실 한국의 대학은 정부 지시 일변도의 행정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셈이다. 정부의 지시 일변도식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이러한 상부 기관에 의한 행정 업무의 방식에 타당화되어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官僚化한 형식과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대학의 학생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지식의 폭증으로 대학의 기능이 더욱 다변화됨에 따라 대학의 행정 조직은 더욱 비대화되고 세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학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연의 自律性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教授의 가르치는 기능과 연구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또한 학생들의 요구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시 일변도의 劃一的이고 硬直化된 官僚的 行政方式는 교수와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大學文化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慢性的인 學園騷擾를 배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학원 소요는 독재 정권 타도를 기치로 하여 시작된 4·19 학생의거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 3선 개헌, 유신헌법 제정 등 여러 가지 政治變動과 함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학원 소요는 대학 자체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 학생과 대학 당국, 그리고 정부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학원 소요의 발생 원인이나 그것의 정당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논의로 하더라도 學園騷擾가 대학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선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시위나 집회 등으로 인하여 學業이 엄격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學業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는 점이다. 학원 소요가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무기한 휴교령을 내린 先例가 여러 번 있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은 4년간의 학사 일정을 채우지 못한 채 졸업할 수밖에 없었다. 휴교 조치가 없더라도 학원내의 소요로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이다.

학원 소요가 대학의 문화에 미치는 또 한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은 知的 共同體가 되어야 할 教授와 學生間의 관계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 관계는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로 멀어져 있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학원 소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일 이외에 학원 소요와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학생들은 교수들을 단지 학문의 스승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價値判斷者로서, 때로는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대변자로 기대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또 기대했던 바대로 교수들이 움직여 주지 않을 때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대감은 깨지고, 대학이 본래 지니고 있어야 할 구성원간의 共同體意識이 사라지게 된다.

또 한편 학원 소요는 대학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自律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학원 소요의 대부분이 大學內的인 문제보다는 大學外的인 문제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事後處理도 단순히 대학의 행정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외부의 개입을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학의 自律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外部의 統制가 지속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데는 학원내 소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大學文化를 형성하는 요인 가운데,

투입 요인으로서의 대학생들의 급증 현상, 이에 따른 教授의 수, 그리고 教授 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고, 과정 요인으로서의 大學의 理念에 대한 인식, 教育課程의 編成과 運營實態, 教授 方法과 評價方法, 學問的 研究與件, 大學行政 管理體制의 官僚性, 慢性的인 學園騷擾 등을 살펴 보았다. 이상에서 제기된 것 이외의 大學文化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大學教育은 量的인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大學教育의 업적 및 성과 역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놓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量的인 성장에 비하여 質的인 발전을 위한 적절한 대처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특히 최근의 급증하는 대학 진학률은 이를 더욱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급격한 사회 변동과 지식 및 기술의 팽창이 주는 부담은 기존의 大學文化 風土로

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大學文化는 國家發展의 원동력이다. 더 이상 不殆의 증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대학에 뿌리 깊게 깔려 있는 폐습을 버리고, 大學文化의 과감한 改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參考文獻〉

- 鄭範設, “教育風土; 그 綜合的 研究를 위한 理論的 探索”, 韓國行動科學研究所: 行動科學研究 卷9 권 제9호 통권 83호, 1976.
- 姜武燮, 鄭日煥, 閔戊淑, 韓國高等教育政策研究, 韓國教育開發院: 研究報告 RR85-35, 1985.
- 尹正一, 高等教育的 秀越性, 韓國教育開發院 研究叢書 3, 1985.
- 韓國大學教育協議會, 中等教育통계자료집(19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86-9-37.
- 李恩珍, “教養教育의 運營實態와 改善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教育」, 1986.7(통권 22호).